

2018.02.22

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'정식서명'



-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인 **2018년 2월 21일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**하였습니다.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가서명을 한뒤 공식적으로 서명하였습니다. 정부는 향후 국회보고 및 비준 동의를 거친뒤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
- 한-중미 FTA는 **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과테말라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파나마** 6개국과의 FTA로 **중미 6개국**이 아시아 국가와 타결한 첫 번째 FTA입니다.
- 중미 6개국은 소득이 높지 않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,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(타이어), 철강 및 건설 장비, 알로에 주스를 포함한 건강음료 등 FTA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한-중미FTA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중미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2018.02.22

한·중미 FTA 기대효과

1.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

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면, 향후 10년간 ① GDP 0.02% 증가 ② 소비자 후생 6.9억 달러 개선 ③ 2,534개의 고용 창출효과 기대.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15년 누적 5억 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천 7백억 원의 생산 증가 예상

2. 대·중소기업 수출 증대 가능성

전체 품목의 95%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기로 약속해 향후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
자동차, 철강,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, 화장품, 의약품, 섬유,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. 쌀, 고추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, 쇠고기(19년), 돼지고기(10~16년), 냉동새우(TRQ) 등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.

3. 서비스 시장 개방, 투자자 보호 및 정부조달 시장 진출

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(WTO)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, 체계적인 투자자-국가간 소송제도(ISDS)를 도입,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.

4.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한류 콘텐츠 보호

통관, 인증, 지적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, 지적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.

2018.02.22

향후 절차

- 정부는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의 '18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. (후속절차 ① 국회보고 ② 국회비준동의 요청 ③ 설명회 개최)
- 국회 비준 동의 이후, 한-중미 상호간에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효됩니다. (국내절차를 통보한 날로부터 두 번째달 1일 또는 양국이 별도 합의한 날 발효)
- 한-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(FTA) 홈페이지(www.fta.go.kr)에 상세 설명자료와 함께 공개됩니다.

한-중미 FTA 추진경과

- '10.10~'11.5월 한-중미 FTA 공동연구 실시
- '12.10월 제1차 한-중미 FTA 추진가능성 검토회의 개최
- '15.4월 대경장 의결, 대국민 공청회, 국회 보고 등 절차완료
- '15.6월 한-중미 FTA 협상개시 선언
- '15.7월 한-중미 FTA 예비협약(7.28-30, 산살바도르) 개최
- '15.9월~'16.10월 총 9차례 협상 개최
- '16.11월 한-중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실질 타결을 공식 선언
- '17.3월 한-중미 FTA 가서명(3.10, 코스타리카 산호세)